

이야기 카드 1

대신 해 온 수행평가

다인이가 아파서 이틀 결석한 사이, 건우가 다인이 몫의 수행평가 자료 조사까지 다 해서 모둠 단톡방에 올렸다. 등교한 다인이는 자료를 받아 들고 한참 말이 없었다.

A 다인 B 건우 **지켜본 사람** 같은 모둠 소율



이야기 카드 2

떨어진 바통

체육대회 반 대항 계주 마지막 바퀴, 바통이 바닥에 떨어졌다. 태윤이는 다인이가 제대로 안 잡았다고, 다인이는 태윤이가 너무 일찍 손을 놨다고 기억한다.

A 태윤 B 다인 **지켜본 사람** 응원석의 건우



이야기 카드 3

같이 본 영화

소율이가 고른 영화를 건우와 함께 봤다. 소율이는 별 다섯 개, 건우는 별 하나를 줬다. 건우가 "솔직히 지루했어."라고 하자, 돌아오는 버스에서 둘 다 말이 없었다.

A 소율 B 건우

지켜본 사람 둘을 기다리던 태윤